

새로운 경제시스템 창출을 위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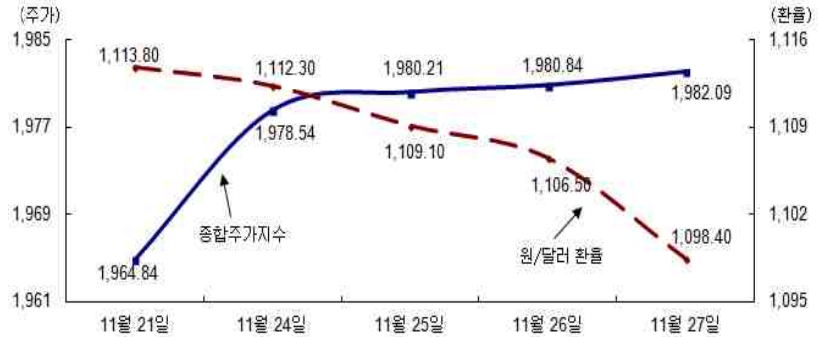
경제주평

Weekly Economic Review

■ 고용의 10대 구조적 변화
- 고용탄성치 역대 최고 기록

週間 主要 經濟 指標 (11.21~11.27)

Better than
the Best!



차 례

| | | |
|------------------|-------|----|
| 주요 경제 현안 | | 1 |
| □ 고용의 10대 구조적 변화 | | 1 |
| 주요 국내외 경제지표 | | 14 |

□ 본 자료는 CEO들을 위해 작성한 주간별 경제 경영 주요 현안에 대한 설명 자료입니다.
 □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하시기 위해서는 본 연구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 관 : 한 상 완 연구총괄본부장 (2072-6230, swan@hri.co.kr)
 □ 경제연구본부 : 김 광 석 선임연구원 (2072-6215, gskim@hri.co.kr)

Executive Summary

□ 고용의 10대 구조적 변화 - 고용탄성치 역대 최고 기록

■ 고용구조 변화의 서막

경제성장과 고용의 관계가 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구구조와 산업구조, 정부정책이 고용구조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고용구조 변화의 주요한 특징들을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고용의 10대 구조적 변화

(성장-고용) 첫째 ‘고용 없는 성장’에서 ‘성장 없는 고용’으로 변화하고 있다. 197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는 경제성장률보다 고용증가율이 더 빨리 하락하는 ‘고용 없는 성장’의 시대였다. 고용탄성치($\frac{\text{고용증가율}}{\text{경제성장률}}$)가 1970년대 초반 0.41에서 2000년대 후반 0.22로 떨어진 것이다. 반면 2010년대 들어 경제성장률은 하락하는 반면 고용증가율이 상승하면서 고용탄성치가 0.60으로 급등하였으며, 이런 추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인구-고용) 둘째, 일자리 부족에서 노동력 부족으로 전환되고 있다. 저출산·고령화로 노동공급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반면 노동수요가 지속되면서, 2020년대 초반부터 노동공급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고용의 고령화도 심화될 전망이다.

(산업-고용) 셋째, 고용의 중심이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이동하고 있다. 산업구조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재편됨에 따라, 총 취업자 중 서비스업 종사자의 비중이 1980년 37.0%에서 2014년 69.6%로 확대되는 반면 제조업 종사자 비중은 21.6%에서 16.9%로 감소하고 있다.

< 고용의 10대 구조적 변화 >

| | | |
|-------------------|-----------|-----------------------------|
| 고용구조 변화의 배경 측면 | 성장-고용의 관계 | ① ‘고용 없는 성장’에서 ‘성장 없는 고용’으로 |
| | 인구-고용의 관계 | ② 일자리 부족에서 노동력 부족으로 |
| | 산업-고용의 관계 | ③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
| 고용구조 변화의 양적 측면 | 경제활동인구 | ④ 비경제활동인구가 경제활동인구로 이동 |
| | 장년 고용 | ⑤ 늦어지는 은퇴연령 |
| | 여성 고용 | ⑥ 워킹맘(Working Mom)의 일반화 |
| 고용구조 변화의 질적 측면 | 청년 고용 | ⑦ 워킹던트(Working stuDent)의 부상 |
| | 근로 시간 | ⑧ 장시간 근로체제 완화 |
| | 임금근로자 | ⑨ 근로조건의 점진적 개선 |
| | 자영업자 | ⑩ 자영업자가 임금근로자로 이동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경제활동인구) 넷째, 비경제활동인구가 경제활동인구로 이동하고 있다. 생산가능인구 증가폭이 줄어들면서 비경제활동인구가 노동시장으로 흡수되고 있는 것이다. 2013~2014년에 경제활동인구가 66.5만명 증가한 반면 비경제활동인구는 28.7만명 감소하였으며, 이런 추세가 당분간 지속되면서 고용률이 상승할 전망이다.

(장년 고용) 다섯째, 은퇴연령이 늦어지고 있다. 기대수명이 길어지는 반면 노후준비가 부족하여 베이비붐세대(1955~1963년생)가 퇴직을 미루거나 퇴직 후 상당수가 자영업으로 이동하고 있다. 50~64세의 장년층 비중이 2000년 18.3%에서 2014년 28.6%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특히 자영업자가 증가하고 있다.

(여성 고용) 여섯째, 워킹맘(Working Mom)이 일반화 되고 있다. '비취업 기혼여성'은 정체되어 있는 반면 '취업 기혼여성'이 증가하면서, 기혼여성 중 취업자 비중이 2004년 47.3%에서 2014년 50.5%로 과반을 넘어 섰다.

(청년 고용) 일곱째, 워킹턴트(Working stuDent)가 부상하고 있다. 일-학습 병행제, 청년인턴제, 마이스터고 확대 등의 정책적 노력으로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워킹턴트 비중이 2004년 14.4%에서 2014년 19.2%로 확대되고 있다.

(근로 시간) 여덟째, 장시간 근로체제가 완화되고 있다. 법정근로시간 단축이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시간제 일자리가 증가하면서 연간 평균 근로시간은 2000년 2,656시간에서 2013년 2,276시간으로 빠르게 축소되고 있다.

(임금근로자) 아홉째, 근로조건이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사회보험 가입자 비율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다. 임금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은 2004년 1.0만원에서 2014년 1.3만원으로 상승하였다. 다만, 근로조건이 정규직 근로자를 중심으로 개선되고 있어 비정규직과의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자영업자) 마지막으로, 자영업자가 임금근로자로 이동하고 있다. 자영업자의 증감은 임금근로자 증감을 지속적으로 하회하고 있다. 자영업자 비중은 2000년 36.8%에서 2014년 26.9%로 하락하였다. 자영업자의 경영환경이 악화되면서 임금근로자로 전환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 정책적 시사점

첫째, '성장 동반 고용'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창조경제를 통해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하고 고임금 일자리를 창출하며, 투자여건을 개선해야 한다. 둘째, 노동공급 부족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일-가정 양립과 일-학습 병행, 가교일자리 육성 등을 통해 여성과 청년, 고령층을 노동시장으로 견인하고, 중장기적으로 외국인근로자와 개성공단을 통한 북한인력 활용, 출산률 제고에 나서야 한다. 셋째, 비정규직의 근로여건을 개선해야 한다. 비정규직의 근로안정성을 향상시키고, 사회보험 등의 근로여건을 개선해야 한다. 이를 위해 경제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자영업자의 체질 개선에 나서야 한다. 출혈경쟁을 야기하는 무분별한 자영업 진입은 제한하되, 경영컨설팅 등 경영난 타개를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1. 고용구조 변화의 서막

- (연구배경) 경제·인구·산업의 구조적 변화와 정책적 기조가 뒷받침 되면서 고용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가 시작됨
 - 투자 위축 및 저성장 기조로 고용창출력 저하되고 있고, 핵심노동력 (25~49세)이 축소되고 있음
 - 생산가능인구 축소에 따라 노동력을 대체하기 위해 여성과 청년층을 중심으로 노동시장에 진입하고 있음
 - 더욱이 산업구조도 서비스업 중심으로 재편되고, 정책적으로도 유연근로시스템을 확충하게 됨에 따라 고용구조의 변화가 시작됨
- (연구목적) 고용의 구조적 변화를 설명해주는 주요한 특징들을 분석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는 정책적 시사점 제시
 - 고용구조 변화의 배경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양·질적 측면에서의 특징들을 도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시사점을 제시함
 - 고용구조의 변화와 함께 다양한 기회와 위협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

< 고용의 10대 구조적 변화 >

| 주요 관점 | 고용의 10대 구조적 변화 | |
|-------------------|----------------|-----------------------------|
| 고용구조 변화의 배경 측면 | 성장-고용의 관계 | ① '고용 없는 성장'에서 '성장 없는 고용'으로 |
| | 인구-고용의 관계 | ② 일자리 부족에서 노동력 부족으로 |
| | 산업-고용의 관계 | ③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
| 고용구조 변화의 양적 측면 | 경제활동인구 | ④ 비경제활동인구가 경제활동인구로 이동 |
| | 장년 고용 | ⑤ 늦어지는 은퇴연령 |
| | 여성 고용 | ⑥ 워킹맘(Working Mom)의 일반화 |
| 고용구조 변화의 질적 측면 | 청년 고용 | ⑦ 워킹던트(Working stuDent)의 부상 |
| | 근로 시간 | ⑧ 장시간 근로체제 완화 |
| | 임금근로자 | ⑨ 근로조건의 점진적 개선 |
| | 자영업자 | ⑩ 자영업자가 임금근로자로 이동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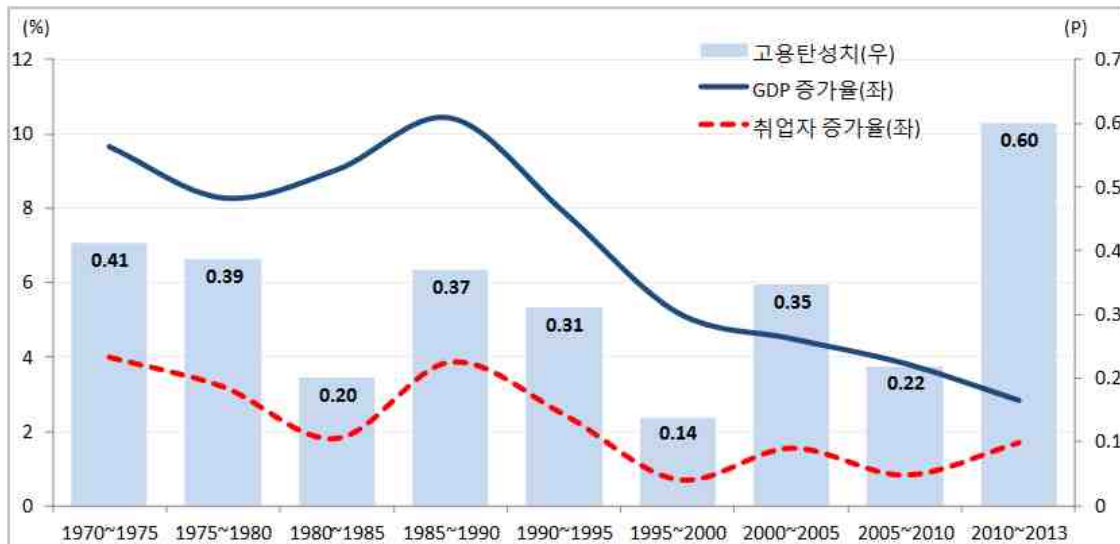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2. 고용의 10대 구조적 변화

① (성장-고용의 관계) '고용 없는 성장'에서 '성장 없는 고용'으로

- '고용 없는 성장' : 197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는 성장을 하락 폭보다 고용 하락폭이 더 높았음
 - 1970년대 초반 고용탄성치(elasticity of employment)¹⁾가 0.41p를 기록한 이후 추세적으로 하락하였고, 2000년대 후반에 0.22p를 기록
 - 즉, 경제구조가 고용창출력이 떨어져 경제규모의 성장폭 만큼 일자리가 창출되지 못하였음²⁾
- '성장 없는 고용' : 2010년대 들어와 성장률이 크게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은 오히려 확대됨
 - 고용탄성치는 통계작성이래 최고 수준인 0.60p로 급등
 - 최근 2000년대 후반에서 2010년대로 진입하면서 경제 성장률이 하락했지만, 고용이 큰 폭으로 확대되면서 고용탄성치가 큰 폭으로 상승
 - 즉, 투자, 소비 등 경제성장세가 위축되고 있지만 취업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고용성장세는 확대됨

< 성장과 고용과의 관계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이 한국은행과 통계청 자료 이용 추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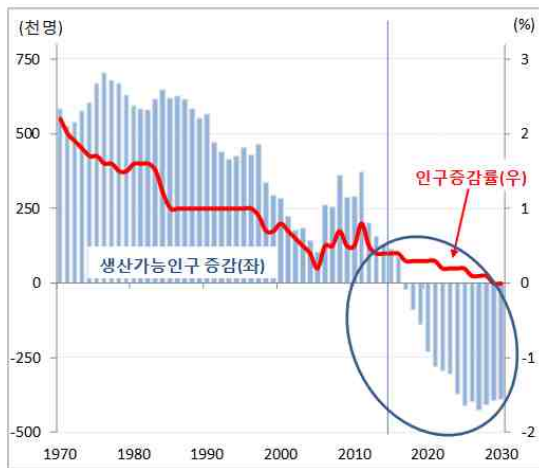
주 : 고용탄성치=취업자 증가율/GDP 증가율.

1) 고용탄성치는 경제성장률에 따른 고용흡수 능력을 의미한다. 즉, 경제가 1% 성장했을 때 고용이 몇 퍼센트 변화하였는가를 나타낸 지표이다.
 2) 현대경제연구원(2013.6), “'성장 없는 고용'은 '고용 없는 성장'보다 위험하다,” 경제주평 13-24호(통권 541호).

② (인구구조-고용의 관계) 일자리 부족에서 노동력 부족으로

- 인구구조의 변화 :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가속화됨에 따라 생산가능인구가 축소되고 있음
 - 생산가능인구는 점차 증가폭이 둔화되다가 2016년 정점을 기록하고, 2017년부터 축소될 전망
 - 생산가능인구가 축소되고 노년 부양부담이 가중되어 대체노동력 확보 필요³⁾
- 고용구조의 변화 : 노동공급 부족 현상 및 고용의 고령화 현상 야기
 - 핵심노동력(25~49세)이 감소하면서 '노동공급 부족 현상'이 나타날 전망
 - 베이비붐세대(1955~1963년생)가 1980년대 청년층으로 노동시장에 진입한 이후, 해를 거듭하여 2010년대에는 장년층으로서 노동시장의 주요 계층이 됨
 - 1980년대 청년층이 총 취업자의 28.5%를 차지하였으나, 2010년대에 들어서는 장년층이 28.6%로 확대되면서 노동시장의 주요한 계층으로 부상
- 수요부족에서 공급부족으로 : 2020년대, 노동공급이 부족한 경제로 변화
 - 베이비붐세대가 점차 노동시장에서 이탈하고, 취업자 규모가 축소되면서 2020년대에는 노동공급이 부족한 현상이 나타날 전망

< 인구 구조의 변화 >



자료 : 통계청(장래인구 추계).

< 취업자의 연령대별 비중 변화 >

| | (%) | | | |
|-----|------------------|------------------|------------------|------------------|
| | '80년대 (1989년) | '90년대 (1999년) | '00년대 (2009년) | '10년대 (2014년) |
| 청년층 | 28.5 | 23.1 | 16.8 | 15.1 |
| 30대 | 27.6 | 29.7 | 24.8 | 22.3 |
| 40대 | 21.7 | 24.1 | 27.8 | 26.1 |
| 장년층 | 18.8 | 18.6 | 24.0 | 28.6 |
| 노년층 | 3.3 | 4.5 | 6.6 | 8.0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이 통계청 자료 이용 추계.

주1 : 각 년대는 말년 기준임.

주2 : 장년층은 50~64세를, 노년층은 65세 이상을 의미함.

3) 현대경제연구원(2014.11), “고령화에 따른 노년부양부담과 시사점,” 현안과 과제 14-41호.

③ (산업구조-고용의 관계)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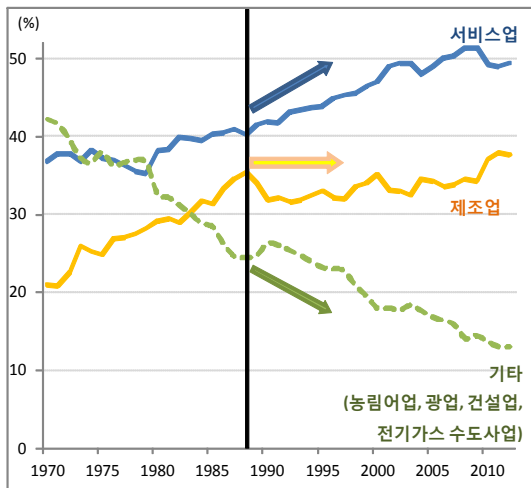
- 산업구조의 변화 : 산업구조가 서비스업 중심으로 재편

- 경제활동별 GDP 비중을 보면, 서비스업이 1970년 36.8%에서 2012년 49.4%로 확대되어 온 반면, 제조업은 정체되고 기타 산업이 크게 쇠퇴해옴
- 과학기술서비스, 교육서비스,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등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산업구조가 재편됨
- 향후에도 제조업은 현지 생산방식 및 주변 개발도상국들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서플라이체인(global supply chain)이 확대됨에 따라 축소될 전망

- 고용구조의 변화 :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고용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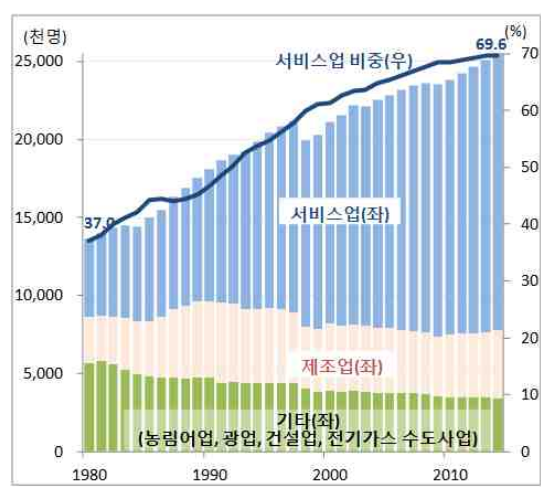
- 서비스업 취업자는 1980년 506만명에서 2014년 1,781만명으로 증가세가 지속되면서, 총 취업자 중 서비스업 비중이 37.0%에서 69.6%로 확대
- 제조업 취업자는 1990년대까지 확대되었으나 이후 정체되고 있고, 기타 산업 취업자는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음
- 특히, 고용 취약계층이던 여성이 서비스산업 일자리를 중심으로 취업하면서 전체 고용확대를 견인하고 있음

< 산업구조의 변화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이 한국은행 자료 이용 추계.
 주1 : 농림어업, 광업, 건설업, 전기가스 수도사업을 기타 산업으로 분류.
 주2 : 부가가치 기준임.

< 산업별 취업자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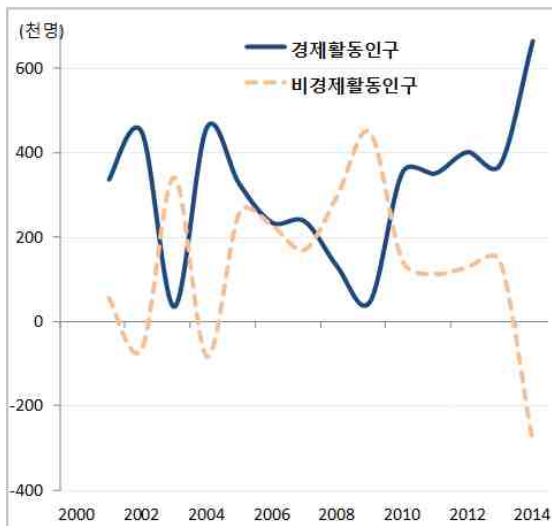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이 통계청 자료 이용 추계.
 주1 : 농림어업, 광업, 건설업, 전기가스 수도사업을 기타 산업으로 분류.
 주2 : 2014년은 1~10월까지의 평균임.

④ (경제활동인구) 비경제활동인구가 경제활동인구로 이동

- 생산가능인구 증가폭이 줄어들면서 비경제활동인구가 노동시장으로 흡수
 - 2013~2014년 동안 경제활동인구는 약 66.5만명 증가한 반면, 비경제활동인구는 약 28.7만명 감소
 - 기존의 고용 취약계층이던 청년, 여성, 장년층을 중심으로 일자리가 확대되면서 비경제활동인구가 대거 경제활동인구로 이동하고, 고용 호조 및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를 견인
 - 고용률 70%달성을 위해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고용확대 노력이 고용 패러다임 전환을 이끔
 - 향후에도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노동공급이 축소되어 비경제활동인구가 경제활동인구로 이동하는 현상이 지속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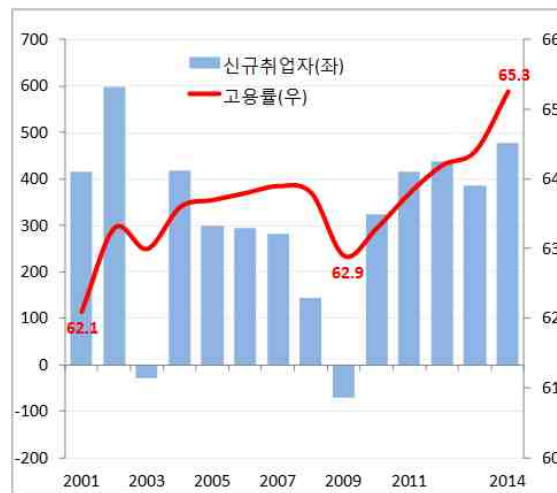
- 고용률 신기록 : 신규취업자가 급증하고 고용률이 4년 연속 최고치 기록
 - 중장년층, 여성이 비경제활동인구에서 취업자로 대거 이동하면서 신규취업자수가 2014년 48만 명, 2015년에도 40만 명을 상회할 전망
 - 15~64세 고용률은 2012년 64.2%, 2013년 64.4%, 2014년 65.3%로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으며, 2015년에도 정부의 일자리 창출 노력 등으로 66.2%를 기록할 전망⁴⁾

< 경제활동인구와 비경제활동인구 증감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이 통계청 자료 이용 추계.
주 : 2014년은 1~10월까지의 평균임.

< 신규취업자 및 고용률 추이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이 통계청 자료 이용 추계.
주1 : 고용률은 15~64세 기준임.
주2 : 2014년은 현대경제연구원 전망치임.

4) 현대경제연구원(2014.10), “2015년 한국 경제의 주요 특징과 경제전망,” 경제주평 14-39호(통권 610호).

⑤ (장년 고용) 늦어지는 은퇴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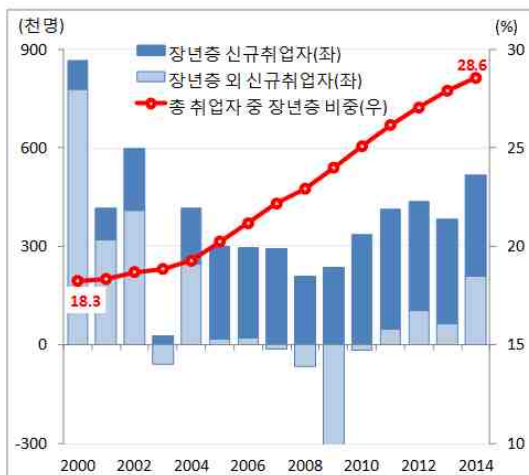
- 50~64세의 장년층을 중심으로 고용 호조세 지속

- 신규취업자가 장년층을 중심으로 확대되면서, 총 취업자 중 장년층 비중이 2000년 18.3%에서 2014년 28.6%로 지속적으로 상승
- 기대수명은 연장되는 반면 노후준비가 충분하지 않는 등 근로유인이 많아 은퇴 후에도 재취업, 가교일자리, 창업, 귀농 등의 방법으로 노동시장 잔류
- 자영업 대책, 정년 연장, 퇴직후 재취업 지원 등의 정책적 노력으로 장년층이 노동시장 내 취업자로 지속적으로 유인
- 향후에도 '재직시-퇴직준비-재취업-은퇴' 등 장년층 생애단계별 맞춤형 지원책을 강화하여 장년층 고용 확대가 지속될 전망

- 전체 자영업자 축소세에도 장년층 자영업자 증가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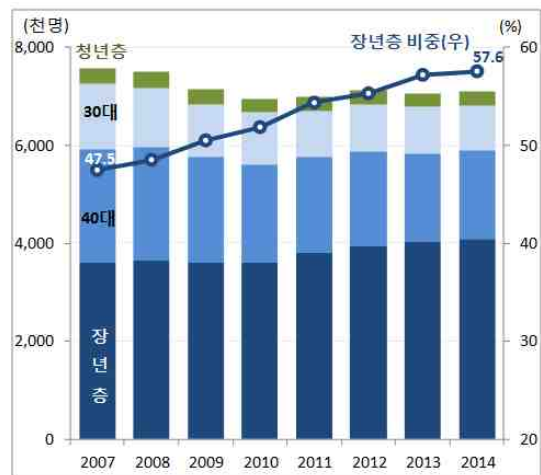
- 베이비붐세대(1955~1963년생)가 생애 주된 직장에서 퇴직한 이후에도 상당수가 자영업으로 이동하면서 노동시장에 계속 유지되고 있음
- 전체 자영업자는 2007년 758만명에서 2014년 711만명으로 줄어든 반면, 50대 이상의 자영업자 규모는 360만명에서 409만명으로 오히려 증가
- 전체 자영업자 중 장년층의 비중은 2007년 47.5%에서 2014년 57.6%로 10%p 이상 확대

< 장년층 고용 추이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이 통계청 자료 이용 추계.
주 : 2014년은 1~10월까지의 평균임.

< 연령대별 자영업자 추이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이 통계청 자료 이용 추계.
주 : 각 년도는 8월 기준임.

⑥ (여성 고용) 워킹맘(Working Mom)의 일반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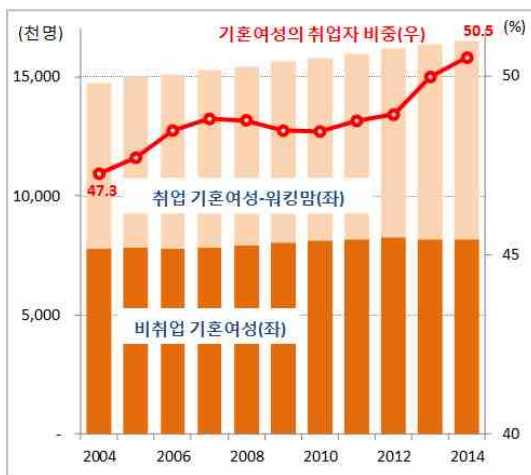
- '취업 기혼여성(working mom)'을 중심으로 여성고용 확대

- '비취업 기혼여성'은 정체되어 왔지만 워킹맘이 크게 확대되면서, 2004년 기혼여성의 취업자 비중이 47.3%에서 2014년 50.5%로 과반을 넘어섬
- 결혼 후 출산·육아·양육·가사 등으로 인해 노동시장에서 이탈하던 여성들이 서비스업 확대, 유연근로시스템 확대, 아이돌봄 서비스 확대 등으로 취업자가 증가함
- 시간선택제일자리, 일-가정 양립 지원, 아이돌봄 지원사업 등 여성의 경력단절 해소 및 유연근로시스템 확대 노력 등 정부정책 효과가 긍정적으로 기여
- 여성의 권익 신장과 자녀 양육 지원 등을 위한 '성(性) 인지' 예산이 대폭 확대되는 등 향후에도 여성이 노동시장으로 유인될 가능성이 높아짐

- 돌봄서비스 산업 팽창과 함께 여성 고용 확대

- 정부의 아이돌봄 지원사업 지원가구 및 아이돌보미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3년 각각 47,700가구, 16,393명을 기록
- 육아 경험이 있는 경력단절 중장년 여성들이 아이돌보미로 활동
- 돌봄서비스 산업이 팽창하면서, 본 산업 내 여성일자리가 크게 증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일-가정 양립 환경이 조성됨에 따라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여성의 시간제 근로가 확대됨

< 기혼여성의 취업-비취업 추이 >



< 아이돌봄 지원사업 추이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이 통계청 자료 이용 추계.
주 : 각 년도는 8월 기준임.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여성가족부.

⑦ (청년 고용) 워킹던트(Working stuDent)의 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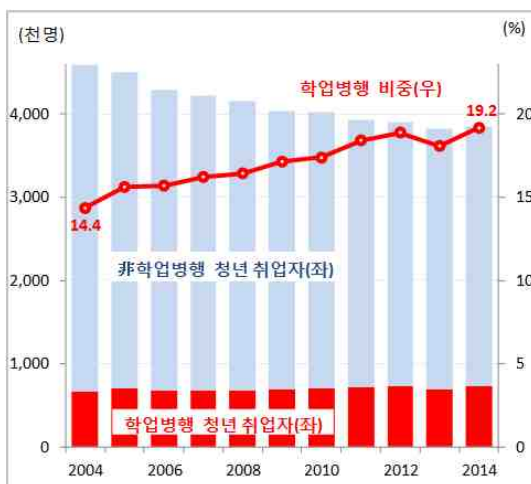
-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워킹던트를 중심으로 청년고용 확대 전망

- 워킹던트는 워킹 스튜던트(working student)의 줄임말로, 현대경제연구원은 학업을 병행하며 일하는 15~29세 청년층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
- 학업병행 청년 취업자의 비중은 2004년 14.4%에서 2014년 19.2%로 확대
- 고용 친화적 정부정책의 효과로 청년 취업자가 2013년 4/4분기를 기점으로 감소세에서 증가세로 전환. 청년 생산가능인구 감소추세를 반영하면 큰 폭의 증가세로 판단됨
- 청년 고용률 및 경제활동참가율도 2013년 1/4분기 이후 상승세 유지
- 청년창업지원기금 확대 등으로 청년의 창업 활성화를 진흥하고, 일·학습 병행제 및 청년인턴제 확대를 통해 청년 취업자 증가세가 지속될 전망

- 정부의 일·학습 병행 활성화 방안의 이행으로 워킹던트 확산

- 일·학습 병행제도를 보급하기 위해 홍보 및 현장 인프라 확충 등의 정부의 노력들이 가속화 될 전망
- 마이스터고 등 고등학교 재학중 산업연계 취업이 확대되고, 대학 재학기간 중 청년인턴 고용 및 창업 등이 확대되면서 청년 취업자가 지속적으로 증가

< 학업병행 여부별 청년 취업자 추이 >



< 정부의 일·학습 병행 활성화 방안 >

| 방안 | 세부 내용 |
|---------------|---|
| 홍보 및 매칭 강화 | 학교 등과 연계하여 순회 설명회 및 일·학습 병행기업 체험 확대 |
| 성공 모델 확산 | 적합 공공기관을 일·학습 병행 선도기업으로 선정 |
| 현장 인프라 확충 | 공동훈련센터 구축, 훈련교사 양성 등 현장실습 체계 강화 |
| 스위스식 직업 교육 도입 | 도제식 수업이 가능한 분야의 특성화고(학과)·산업정보 학교 등을 통해 시범도입 |
| 마이스터고 확산 | 현행 교육체계하에서 마이스터고 형태로의 전환·확산 지속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이 통계청 자료 이용 추계.
 주1 : 2014년은 1~10월까지의 평균임.
 주2 : 청년은 15~29세까지를 의미함.

자료 : 고용노동부.

⑧ (근로시간) 장시간 근로체제 완화

- 평균 근로시간 단축

- 한국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빠르게 단축됨에 따라, 한국과 OECD 평균의 격차가 축소되고 있음
- 한국의 연간 평균 근로시간은 2,276시간으로 OECD국 평균 1,987시간 보다 여전히 길지만, 근로시간이 가장 빠르게 축소되고 있음
- 2014년 7월부터 시행된 개정 근로기준법(제 74조)은 임신한 근로자의 경우 임금 삭감 없이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도록 규정
- 향후에도 시간선택제 일자리 및 일자리 나누기 확산, 법정근로시간 단축 시행 등으로 평균 근로시간이 지속적으로 축소될 전망

- 법정근로시간 단축이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장시간근로자⁵⁾ 축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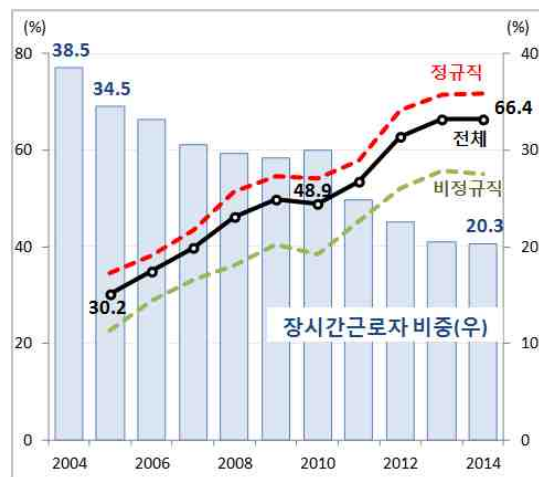
- 주40시간 실시비율이 2005년 30.2%에서 2014년 66.4%로 확대
- 주52시간 이상 근로하는 장시간근로자 비중은 2004년 38.5%에서 2014년 20.3%를 크게 축소되어 옴
- 2004년부터 2011년까지 법정근로시간을 1주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 적용하는 것을 단계적으로 시행해옴
- 향후에도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최장근로시간(근로시간의 절대적 상한)을 설정하고, 휴일근로시간을 포함한 근로시간 규제가 확대될 가능성 있음

< 한국-OECD 연간 평균 근로시간 추이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이 OECD 자료 이용 추계.
주 : Average usual weekly hours worked on the main job 기준임.

< 주40시간 실시비율 및 장시간근로자 비중 추이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이 통계청 자료 이용 추계.
주 : 각 년도는 8월 기준임.

5) 근로시간이 52시간 이상인 취업자이고, 장시간근로자 비중은 총 취업자중 장시간근로자 비중을 의미.

⑨ (임금근로자) 근로조건의 점진적 개선

- 사회보험 가입자 지속적으로 확대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과 같은 사회보험 가입자 비율이 2004~2014년 동안 지속적으로 확대
- 정규직의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가입비율이 각각 9.6%p, 10.3%p, 20.5%p 상승했고, 비정규직은 각각 0.9%p, 4.6%p, 7.7%p 증가
- 평균적으로 사회보험 가입자가 지속적으로 확대 되었지만, 정규직을 중심으로 한 근로조건 개선세가 나타나 정규-비정규직 격차 확대
- 그밖에도 퇴직금, 상여금, 시간외수당, 유급휴가 등 근로복지수혜자 비율도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격차가 확대됨

- 시간당 임금 개선세 지속

- 임금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은 실질임금을 기준으로 2004년 1.0만원에서 2014년 1.3만원으로 상승
- 특히, 정규직은 2004년 1.1만원에서 2014년 1.5만원으로 연평균 3.3% 상승한 반면, 비정규직은 0.8만원에서 1.0만원으로 연평균 2.1% 상승
- 향후 통상임금 범위 확대, 정년 연장, 4대 사회보험 적용 확대, 퇴직연금 의무도입 등 근로기준법 개정 입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정치적 합의 도출 필요성 제기
- 단, 근로조건 개선세가 정규직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향후 비정규직 근로조건 개선에 집중할 필요성 야기

< 사회보험가입자 비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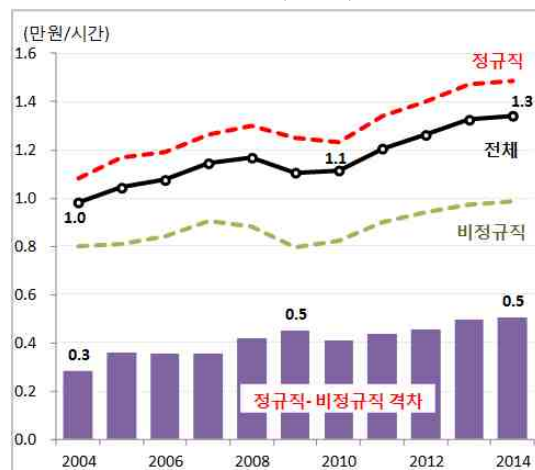
(%, %p)

| 분류 | | 2004 | 2014 | 증감 |
|------|------|------|------|------|
| 국민연금 | 정규직 | 72.5 | 82.1 | 9.6 |
| | 비정규직 | 37.5 | 38.4 | 0.9 |
| 건강보험 | 정규직 | 73.8 | 84.1 | 10.3 |
| | 비정규직 | 40.1 | 44.7 | 4.6 |
| 고용보험 | 정규직 | 61.5 | 82.0 | 20.5 |
| | 비정규직 | 36.1 | 43.8 | 7.7 |

자료 : 통계청(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주 : 각 년도는 8월 기준임.

< 시간당 임금(실질)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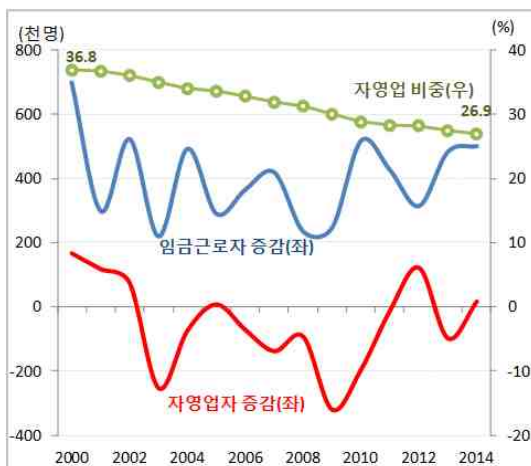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이 통계청 자료 이용 추계.

주 : 각 년도는 8월 기준임.

⑩ (자영업자) 자영업자가 임금근로자로 이동

- 자영업자가 축소되고, 임금근로자는 크게 확대
 - 자영업자의 증감은 임금근로자 증감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자영업자 비중이 2000년 36.8%에서 2014년 26.9%로 하락
 - 창업자의 51.6%가 2년 이내 폐업하고 있음
 - 베이비붐세대가 생애 주된 직장에서 퇴직후 생활밀접형 자영업으로 창업하지만 과밀화 및 경쟁심화에 따라 경영난을 맞이함
 - 정부는 희망리턴패키지 지원사업을 통해 자영업자를 임금근로자로 전환을 장려하는 신규정책을 제시
 - 향후에도 자영업자 구조조정이 지속되고, 자영업자 비중이 축소될 전망
- 자영업자 경영환경 악화 : 창업비용은 증가와 매출액 축소
 - 자영업자의 창업비용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월평균 매출액은 축소되는 등 경영환경이 악화
 - 월평균 매출액은 2007~2013년 동안 연평균 0.7% 증가에 그쳤지만, 창업비용은 3.4% 증가하여 경영환경 및 수익성이 악화
 - 사업장을 소유하는 비중은 29.3%에서 25.2%로 축소되어 임대료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 1인 사업자 비중이 증가하고, 평균 종업원 수는 감소하며 생계형업종을 중심으로 창업이 집중되면서 자영업자의 영세화가 진행됨

< 자영업자 및 임금근로자 증감 추이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이 통계청 자료 이용 추계.
주 : 2014년은 1~10월까지의 평균임.

< 자영업자 경영환경 변화 >

(만원, %, %p, 명)

| | 2007 | 2010 | 2013 | 증감 |
|-----------|-------|-------|-------|--------|
| 월평균 매출액 | 838 | 990 | 877 | 0.7%p |
| 창업비용 | 5,762 | 6,570 | 7,257 | 3.4%p |
| 사업장 소유비중 | 29.3 | 27.2 | 25.2 | -4.1%p |
| 1인 사업자 비중 | 44.3 | 45.4 | 48.2 | 3.9%p |
| 평균 종업원 수 | 1.05 | 1.01 | 0.88 | -0.17명 |
| 생계형 창업 비중 | 79.2 | 80.2 | 82.6 | 3.4%p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이 중소기업청 자료 이용 추계.
주 : 월평균매출액과 창업비용은 연평균 증감률이고, 나머지는 증감임.

3. 정책적 시사점

○ 고용의 구조적 변화 속에서 고용의 양적인 성장과 같은 긍정적 기조를 강화하고, 일자리의 질적 하락 및 일자리 양극화 등과 같은 문제를 해결

- 성장과 고용의 관계를 높이기 위한 대응책을 강구

- 투자 위축 등 경제성장률이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고용이 확대되는 현상은 ‘성장 없는 고용의 함정’에 빠지게 만들 수 있음
- 즉, 일자리의 질이 하락하고, 양극화 및 소비부진의 문제를 야기 할 수 있음
- 창조경제 기조 하에 유망서비스업을 발굴하고, 고부가가치 산업을 바탕으로 고임금일자리를 창출할 필요
- 투자환경을 개선함으로써, 투자확대가 선행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함

- 노동공급 부족 현상에 대해 선제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

- 향후 생산가능인구 축소에 따라 노동공급 부족 현상이 나타날 것이므로, 기업들이 이러한 구조적인 변화를 방관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
- 향후 노동력 부족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비경제활동인구를 적극적으로 노동 시장으로 유인할 수단이 필요
- 특히, 서비스 산업에 적합한 여성 고용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여성 노동 환경 개선, 차별적 관행 타파 등의 노력이 필요
- 여성 비경제활동인구를 노동시장으로 유인하기 위해서는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환경마련이 절대적임(유치원, 보육시설 등이 현저히 부족)
- 여성 뿐만 아니라 청년과 고령층을 노동시장으로 견인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외국인근로자와 개성공단을 통한 북한인력 활용 및 출산률 제고 필요

- 비정규직 근로자를 중심으로 한 근로조건 개선 및 근로안정성 확대 등을 통해 임금근로자의 정규직-비정규직 격차 해소

- 임금 뿐만 아니라,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및 근로복지수혜 등의 근로조건에 있어서 정규직-비정규직의 격차 해소 필요
-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기업주에 대해 규제를 강화하여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를 막아야 함

- 개인의 자발적 수요(학업 및 육아)에 부합하고, 임금, 복리후생, 보험 등의 근로조건에 있어서 균등한 대우를 받는 유연근로시스템이 마련될 필요
 - 시간선택제 일자리 등 비정규직 고용의 경우 자발적 사유에 기인한 선택이 될 수 있도록 고용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
 - 일-학습 병행 일자리, 일-가정 양립 일자리 등이 유연근로제도가 근로방법에 있어서만 유연해 질뿐, 근로조건에서는 유연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보완책 마련이 필요
 - 노동공급자의 수요조사 및 태도에 기반하여 유연근로 일자리를 확대하여, 비자발적으로 일자리를 선택하지 않도록 해야 함
 - 더욱이, 시간선택제 일자리에서 전시간 근로형태로의 전환도 자유로울 수 있도록 체제 정비가 필요
 - 고용의 양적 확대가 질적 개선이 동조될 때, 소득 향상 및 내수경기 회복 등의 경기순환 구조가 가능해짐

- 장년층이 생애 주된 직장에서 퇴직 후 다시 노동시장에 재진입 하는 소위 가교일자리(bridge job) 마련
 - 베이비붐세대가 퇴직 후 성급하게 창업하게 됨에 따라 생활밀접형 자영업 업종의 과밀화·과다 경쟁에 따라 폐업을 겪게 되는 악순환이 초래되고 있음
 - 위와 같은 악순환을 막기 위해, 노동 공급자에게는 재취업을 안내하고 노동 수요자에게는 장년층 고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제를 강화
 - 특히, 장년층이 노동시장에서 완만히 이탈할 수 있도록 공공근로사업 및 가교일자리 마련이 필요
 - 퇴직 후 창업을 계획할 경우, 산업 및 경영 노하우를 충분히 습득하여 '준비된 창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가이드라인 제공

김광석 선임연구원(2072-6215, gskim@hri.co.kr)

주요 국내외 경제지표

□ 주요국 성장률 추이

| 구분 | 2012년 | | | | | 2013년 | | | | | 2014년* |
|-------|-------|------|------|------|------|-------|------|-----|-----|------|--------|
| | 연간 | 1/4 | 2/4 | 3/4 | 4/4 | 연간 | 1/4 | 2/4 | 3/4 | 4/4 | |
| 미국 | 2.8 | 3.7 | 1.2 | 2.8 | 0.1 | 1.9 | 2.7 | 1.8 | 4.5 | 3.5 | 1.8 |
| 유로 지역 | -0.6 | -0.1 | -0.3 | -0.1 | -0.5 | -0.4 | -0.2 | 0.3 | 0.1 | 0.3 | 0.8 |
| 일본 | 2.0 | 3.7 | -1.7 | -3.1 | -0.2 | 1.7 | 5.2 | 3.4 | 1.4 | -0.2 | 0.9 |
| 중국 | 7.7 | 8.1 | 7.6 | 7.4 | 7.9 | 7.7 | 7.7 | 7.5 | 7.8 | 7.7 | 7.4 |

주 : 1) 2014년 전망치*는 IMF 2014년 10월 전망 기준.

2) 미국, 일본은 전기대비 연율, 유로 지역은 전기대비, 중국은 전년동기대비 기준임.

□ 국제 금융 지표

| 구분 | | 2012년말 | 2013년 | | 2014년 | | 전주비 |
|----|------------------|---------|---------|---------|---------|---------|-----------|
| | | | 6월말 | 12월말 | 11월 20일 | 11월 27일 | |
| 해외 |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 1.70 | 2.46 | 3.03 | 2.34 | 2.24 | -0.10%p |
| | 엔/달러 | 85.86 | 98.51 | 105.04 | 118.21 | 117.71 | -0.50¥ |
| | 달러/유로 | 1.3222 | 1.3031 | 1.3799 | 1.2539 | 1.2467 | -0.0072\$ |
| | 다우존스지수(p) | 12,938 | 14,910 | 16,577 | 17,719 | - | - p |
| | 닛케이지수(p) | 10,395 | 13,677 | 16,291 | 17,301 | 17,249 | -52p |
| 국내 | 국고채 3년물 금리(%) | 2.82 | 2.88 | 2.86 | 2.16 | 2.11 | -0.05%p |
| | 원/달러(원) | 1,070.6 | 1,142.0 | 1,055.4 | 1,115.1 | 1,098.4 | -16.7원 |
| | 코스피지수(p) | 1,997.1 | 1,863.3 | 2,011.3 | 1,958.0 | 1,982.1 | 24.1p |

□ 해외 원자재 가격 지표

| 구분 | | 2012년말 | 2013년 | | 2014년 | | 전주비 |
|---------|-------|--------|--------|--------|---------|---------|---------|
| | | | 6월말 | 12월말 | 11월 20일 | 11월 27일 | |
| 국제 유가 | WTI | 90.89 | 96.52 | 98.55 | 75.70 | - | - \$ |
| | Dubai | 107.99 | 100.38 | 107.88 | 74.18 | 73.33 | -0.85\$ |
| CRB선물지수 | | 294.78 | 275.62 | 280.17 | 268.80 | - | - p |

1) CRB지수는 CRB(Commodity Research Bureau)사가 곡물, 원유, 산업용원자재, 귀금속 등의 주요 21개 주요 상품선물 가격에 동일한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하는 지수로 원자재 가격의 국제기준으로 간주됨.

□ 국내 주요 경제지표 추이

| 구 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 | 2015년(E) | | | |
|----------------|----------------|--------|--------|-------|-------|----------|-------|-------|-------|
| | | | 상반 | 하반(E) | 연간(E) | 상반 | 하반 | 연간 | |
| 국민계정 | 경제성장률 (%) | 2.3 | 3.0 | 3.7 | 3.6 | 3.6 | 3.5 | 3.6 | 3.6 |
| | 민간소비 (%) | 1.9 | 2.0 | 2.0 | 2.6 | 2.3 | 3.0 | 2.6 | 2.8 |
| | 건설투자 (%) | -3.9 | 6.7 | 1.9 | 1.8 | 1.9 | 1.8 | 4.3 | 3.0 |
| | 설비투자 (%) | 0.1 | -1.5 | 7.5 | 3.9 | 5.7 | 4.2 | 6.0 | 5.1 |
| | 지재투자 (%) | 8.6 | 7.3 | 6.5 | 5.9 | 6.2 | 7.3 | 7.0 | 7.1 |
| 대외거래 | 경상수지 (억 달러) | 508 | 799 | 392 | 408 | 800 | 320 | 360 | 680 |
| | 무역수지 (억 달러) | 283 | 440 | 202 | 231 | 433 | 192 | 234 | 426 |
| | 수 출 (억 달러) | 5,479 | 5,596 | 2,833 | 2,936 | 5,770 | 2,949 | 3,074 | 6,023 |
| | (증가율, %) | (-1.3) | (2.1) | (2.5) | (3.7) | (3.1) | (4.1) | (4.7) | (4.4) |
| | 수 입 (억 달러) | 5,196 | 5,156 | 2,631 | 2,705 | 5,336 | 2,757 | 2,840 | 5,597 |
| | (증가율, %) | (-0.9) | (-0.8) | (2.6) | (4.4) | (3.5) | (4.8) | (5.0) | (4.9) |
| 소비자물가 (평균, %) | 2.2 | 1.3 | 1.4 | 1.9 | 1.7 | 2.0 | 1.9 | 1.9 | |
| 15~64세 고용률 (%) | 64.2 | 64.4 | 65.0 | 65.6 | 65.3 | 66.0 | 66.5 | 66.2 | |

주 : E(Expectation)는 전망치.